여야, 손은 잡았지만… 4·13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쟁점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재도부 회동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소득 없이…선거구획정 합의 또 실패

여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연장 허용 권고

노동법, 일괄 vs 분리처리 팽팽…쟁점법안 상임위 가동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에서 회동해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각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실종 사태로 예비후보 등록 중단과 기존 예비후보 등록자의 불법 선거운동 묵인이라는 '초법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원외 총선 입지자는 물론 전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일단 '미봉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일부터 금지된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잠정적으로' 허용된 기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 신청 및 수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협상에서 여야는 또 여권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실상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지던 법안 협상을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상임위가 전격 가동될 전망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의석수 관련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3%의 정당지지를 받은 경우 3석을, 5%의 지지를 받은 경우에 4석을 보장하는 등 비례대표 의석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노동5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더민주는 이날 회동에서 노동5법 쟁점법안 분리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분리처리가 곤란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이견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나머지 3법은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아직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간극의 차이가 있다"며 "여하튼 최선을 다해 한걸음 한걸음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회동에 대한 질문에 "일단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단도 새로 선출돼야 하니 추진 과정을 보겠다"며 "쟁병법안도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으니 더 좁혀지면 그것을 들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쟁점법안은 세계관의 차이, 가치의 차이가 있다"며 "좁혀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당파 제각각 창당절차…야권 연대 '지지부진'

박주선 등 통합 논의 제안에 安·千 독자신당 전념

"先 창당 後 논의"…다음달 설 전후 본격화 할 듯

야권 신당 세력 간의 통합이 다음 달 설 연휴를 기점으로 가시화 될 전망이다. 신당 세력 간 통합의 키를 쥔 안철수, 천정배 의원이 통합 신당 창당보다는 독자신당 창당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이 일찌감치 '선(先) 독자세력화-후(後) 연대 및 통합' 입장을 밝히며 다른 신당파들과의 통합 작업에 선을 그은 상황인데다 천 의원도 안철수 신당과의 주도권 경쟁을 의식해 독자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원외정당인 민주당의 김민석 전 의원은 지난 8일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3자(者)가 먼저 손을 잡은 뒤 천 의원과 '소(小)통합'을 이루고, 이어 안 의원과 통합하는 '단계적 통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고 통합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각 신당의 창준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천 의원 측은 이달 31일까지의 독자신당 창당 목표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박주선·박준영·김민석 세력'과의 통합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호남의 개혁정치 복원과 '뉴DJ' 발굴 등 야권의 주도 세력 교체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의 '국민의당'(가칭)도 지난 10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하고 다음달 2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시·도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 신당 세력의 본격적인 통합 논의는 각자 신당 창당을 마친 설 연휴를 전후해서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국민회의 측에서 말로는 기득권 포기를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 신당 세력 간의 통합을 외면하는 등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호 불신 구조로 과연 통합 신당이 창당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安 측근' 서정성 전 광주시의원 총선 출마선언

안철수 의원의 측근인 서정성 전 광주시의회 의원은 11일 "광주 남구에서 담대한 변화의 첫발을 내딛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는 달라지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호남에서부터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안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서 전 의원은 "역사의 고비마다 항상 옳은 선택을 했던 호남이 다시 한 번 결단해야 할 때가 왔다"며 "제1야당 독주체제의 고리를 끊고 2년 전 '새정치'에 걸었던 기대와 열망을 모아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지형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안과 의사로 광주 남구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서 전 의원은 6대(2010~2014년) 광주시의회 의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최권일기자 cki@

이남재 광주 북구을 출마예정자 출판기념회

광주 북구을 출마 예정인 이남재 동아시아미래재단 전략기획본부장이 13일 오후 2시 광주 적십자회관 수련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하며 '손학규의 복심'으로 불리는 그는 저서도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며 이남재, 손학규를 만나다'다.

이 본부장은 손 전 대표의 정치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저서 제목도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며'로 정하고, 저서를 통해 손 전 대표와의 만남과 '저녁이 있는 삶'을 구체적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 손 전 대표의 '100일 민심 대장정'을 기획한 내용 등을 책에 담았다. 이 본부장은 손 전 대표가 서강대 정외과 교수 시절 제자로 인연을 맺은 이후 줄곧 함께해오고 있어 이번 출판기념회에 손 전 대표가 참석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결선투표에도 '신인 가산점'

최고위 총선 공천룰 확정…'불성실' 현역엔 불이익

새누리당은 11일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1위 득표자의 경우, 2위 후보자의 격차가 10% 포인트 이내에 들어오면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 또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정치신인·여성 등에게 가산점을 모두 적용키로 했다.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현역 의원들에게도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 가산점은) 신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면서 "정치신인·장애인·여성·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은 공천에서 기회를 더 준다는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선거가 임박해서 지역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상임위도 구성이 안 되고 국회 본래의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면서 "이 때문에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선의 대원칙은 당원과 국민의 참여 비율을 각각 30:70으로 적용하되 비율 조정과 현장투표 실시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방법은 앞으로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 영입 인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르되 특정 지역에서 실시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최고위에 두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기초단체장은 20%, 광역단체장은 10%의 감점을 각각 주기로 결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북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